

# 자기애적-피학성 성격

The Narcissistic-masochistic Character

Arnold M. Cooper

“재미있는 시대에 살고 있네 you live in interesting times”라는 중국의 옛 문구가 있다. 정신분석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된 패러다임들에 대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오래된 사고와 새로운 사고가 주목과 충성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분석적으로 흥미로운 시대인 것이다. 지성사에서 이처럼 열광적이고 독창적인 동요의 시기는 새로운 사상의 발달로 이어져오곤 했다. 새로운 기법으로 새롭게 실험하고 새로운 자료로 옛 이론을 반박하며 새로운 사고가 새로운 이론으로 이어질 때, 학문은 크게 진보한다. 1970년대 초부터 흥미롭고 독창적인 정신분석적 갈등의 대부분은, 오이디푸스기 이전 경험의 결정적인 역할 및 성격발달에서 자기애 또는 자기self라는 쟁점의 중심적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다. 나는 피학적인 방어가 오이디푸스기 이전의 자기애적인 발달에 널리 존재하며, 피학성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많은 임상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발달과 병리에서 피학과 자기애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프로이트가 신경증 발생론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중심적인 역할 “표어”로 언급했던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포기하기를 요구한다. 더 나아가 자기애적-피학성 성격이 있으며 임상작업을 하다보면 분명한 것은 어느 것도 단독으로 등장하지 않으므로 피학과 자기애는 발달과 임상적 양상 모두에 매우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반세기 이전 프로이트(1931)가 엄마에 대한 어린 딸의 애착 지속시간과 강렬함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을 때, 우리의 생각을 재공식화 하는 문제에 대한 조짐이 있었다. : “여성에게 오이디푸스기 이전 시기는 새로운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는 그 단계에 대해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가 신경증의 기원으로 추적할 수 있는 모든 고착과 억압이 이 단계에서도 존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신경증의 핵심이라는 명제의 보편성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수정을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여성의 성(1931), p. 225].”

그런 다음 프로이트는 초기 사건을 포괄하기 위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다시 정의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것을 수용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 “어린 여자 아이의 오이디푸스기 이전 단계에 대한 우리의 통찰은 하나의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마치 그것은 다른 분야의 발견, 즉 그리스 문명 뒤의 미노스-미케네 문명을 발견한 것과도 같은 놀라움이었다. 엄마에 대해 처음 애착을 보이는 단계에 속하는 모든 것이 정신분석에서는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고,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고, 그래서 다시 되살리기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너무 과도한 억압 속에 파묻혔던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다[여성의 성(1931), p. 226].”

아마도 이것이 바로 우리 자료가 요구할지 모르는 광범위한 이론적 수정을 수용하면서 겪어야 하는 프로이트와 우리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사실 그는 자신의 유작인 “정신분석학의 개요”(1938)에서 거리낌 없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신경증의 핵심이라고 또 다시 발언했다.

정신분석을 받는 대부분의 환자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병리를 보였는지 의심스럽다. Edward Glover는 1955년에 출판한 자신의 “정신분석 기법”에서 전통적인 전이신경증 사례 부족을 이미 한탄하고 있다. 그는 “평범한 분석사례 목록에서 매우 드물게 우연히 등장하는, 경증이고 대부분 호전된 사례”들을 언급했다(p. 205). 우리 중 몇 명이 “전통적인 전이신경증”의 많은 사례를 만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신경증의 핵심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프로이트에게 너무나 중요한 임상적 견해를 포기하기란 어렵다. 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위대한 발견과 인간사에서 차지하는 그것의 중대한 역할을 결코 경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이트와 달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전체적 관점에서 수많은 중대한 발달 시기 중 하나로 여기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자기애적-피학성 병리를 이해하고 신경증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프로이트처럼 주저하는 것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Kohut의 자기심리학(1971)은 오늘날까지 정신분석적 발달 연구, 임상 경험, 일반론에서 다양한 모순된 요소를 다루고 해결하려는 가장 급진적인 시도를 보여줬다. 내가 다른 곳에서(1983) 논술했던 바와 같이, 나는 자기심리학이 설명한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열정적 시도가, 정신분석적 작업의 미해결된 몇몇 주요 문제를 드러냈다고 믿는다. 10년 이상 동안 정신분석은 우리가 오이디푸스기 이전 사건을 더 새롭게 중시하면서 자기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생산적으로 몰두했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연구의 수확은 컸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다소 불분명한 메타심리학적이고 임상적인 개념화 작업에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 중 피학이라는 개념과 피학성 성격이 가장 눈에 띈다.

피학성에 대한 우리의 주요 개념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초점을 맞췄던 정신분석적 사고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정신분석의 문화적 풍토는 달랐다. 분리-개별화, 자존감 조율, 초기 대상관계의 본성 등에 대한 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해 피학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피학적인 현상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이론과 정의에 대한 재검토

문헌은 방대하지만 나는 몇 가지 중요한 지점만 거론할 것이다. 피학성이라는 용어는 Leopold von Sacher-Masoch의 소설, 모피를 입은 비너스(1870)를 참조해 1895년 Krafft-Ebing이 만들었다. 이 소설은 노예상태, 수동성, 굴욕의 경험에 기꺼이 복종하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문당하는 상태를 묘사하며, Krafft-Ebing도 이를 언급했다. 비록 프로이트가 피학성에 관한 초기 저작에서 고통에 부착된 뚜렷한 성적쾌락과 도착적 피학성에 관심이 있었고 나중에서야 분명한 성적인 만족 없이 성격 형성의 일환으로 굴욕과 괴로움을 추구하는 도덕적 피학성 문제에 관심을 보였지만, 프로이트(1920)는 Krafft-Ebing의 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현상에 대해 프로이트는

몇 가지 설명을 주장했다. :

1. 신경계의 과도한 자극이 고통과 쾌락 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것은 생리학의 본성이다.
2. 피학성은 욕동의 변천이다. ; 가학성 또는 공격성, 원초적인 욕동은 피학성, 2차적인 본능적 현상인 자기에게서 등을 돌린다.
3. 피학성은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것, 원초적인 욕동, 죽음충동의 구성요소, 반복강박의 결말, 자동조절 원리를 따르는 독립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원초적인 욕동의 피학성은 발달과정에서 외부로 유도되고, 제3의 현상은 임상적 피학성으로 내부로 다시 유도된다.
4. 도덕적 피학성은 지나치게 가혹한 초자아에 의한 처벌욕구이다. 성적으로, 보통 오이디푸스적인, 금지된 소망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속죄 수단으로 처벌을 구한다.
5. 피학적인 고통은 쾌락의 원천이 아니라 쾌락을 위한 조건이다. 즉 피학적인 사람은 고통 자체를 즐기지 않는다. ; 오히려 그들은 금지되거나 분에 넘치는 쾌락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피할 수 없는 죄값인 고통을 기꺼이 견딘다.
6. 피학성은 여성성 및 수동성과 관련 있다.

나는 프로이트가 불쾌 속의 쾌락이라는 역설을 만족스럽게 설명하기 위해 전 생애를 바쳐 애썼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끝낼 수 있는 분석과 끝낼 수 없는 분석”(1937)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분석 작업 중에 마주치는 저항 중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회복을 가로막고 병과 고통에 완전히 달라붙으려 하는 힘의 저항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도 없다. 우리는 이 힘의 일부를 죄의식과 처벌욕구라고 확실하게 확인했으며, 자아가 초자아와 맺는 관계로 국한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심리적으로 초자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일부만 알려졌을 뿐이다. ; 같은 힘의 다른 부분은 묶인 형태든 자유로운 형태든 다른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피학적인 현상, 그토록 많은 신경증 환자의 부정적 치료반응과 죄의식 현상으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그림을 염두에 둔다면, 심리적 사건이 오로지 쾌락욕망에 의해서만 지배받는다고 더 이상 믿기 힘들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심리적 삶의 어떤 힘, 즉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공격욕동 또는 파괴욕동이라 부르는, 생물의 근원적인 죽음충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힘의 존재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낙관적 생명이론과 비관적 생명이론의 대립이 아니다. 두 가지 원초적 욕동, 즉 에로스와 죽음충동의 협동작용과 충돌작용만이 생명 현상의 다채로움을 설명해 줄 수 있다 [p. 242].”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죽음충동은 인기를 얻지 못했던 개념이다. 뒤이어 나온 피학성에 관한 방대한 문헌은 Brenner(1959), Stolorow(1975), Maleson(1984), Grossman(1986), 내가 참여한 Pane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Fischer, 1981)이 잘 간추렸다. 나는 이들의 요약은 반복하지 않을 텐데, 그 요약은 피학성의 결과로 여겨지는 병인론과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간단명료하게 알려준다. Stolorow의 논문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는 가학성-피학성 발달이 만족스러운 자기-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학성의 자기애적인 기능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의 논의는 이른바 도덕적인 피학성(또는 “심리적인” 피학성)에만 국한시킬 것이다. 나는 발달상 다른 현상이라 믿는 도착적 피학성은 논하지 않을 것이다.(이 쟁점에 대한 간단한 논의는 Maleson, 1984, p. 350를 보라.) 그런데 도

착적 판타지는 다양한 인격의 사람들에게 매우 흔한 것이다.

피학성을 정의 내리려는 많은 시도가 있어 왔는데, Brenner의 정의(1959)가 여전히 권위 있다. 그는 피학성을 “찾기와 쾌락 둘 중의 하나 또는 둘 다 의식적이기보다 무의식적이라는 전제에서, 성적인 쾌락을 위해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나 불쾌함 또는 비참함이라는, 불쾌를 추구하는 것(p. 197)”이라고 정의했다. Brenner는 피학성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된 금지된 성적 쾌락으로 인한 고통스런 형벌의 수용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학적 현상이 가해자의 매력, 대상통제 유지 등의 목적을 포함해 다양한 심리적인 기능을 하면서 정상상태와 병리상태 도처에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Brenner는 피학성 성격의 발생이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거부하는 부모와 관련 있는 것 같다고 믿었다.

피학성에 대한 또 다른 잘 조직된 관점은 故 Edmund Bergler의 방대한 저작에서 제안되었다. 그의 이론은 현재 큰 관심거리인 주제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이디푸스기 이전 시기와 자기애에 대한 강조는 시기상조였고, 문헌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작품에 대해 간단한 개요를 소개할 것이다. 1949년까지 Bergler는 피학성이 신경증적 행위의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말했고, 피학적 현상을 자기애적인 발달이나 자존감 체계의 발달이라는 쟁점과 연결지었다. Bergler는 심리적 피학성이 인간 발달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측면으로 발전하는, 발생론적 도식을 상세히 묘사했다. 나는 이 논문의 주제와 특히 관계가 깊은 몇 가지 요소들만 거론할 것이다.

1. Bergler는 유아기 전능환상이나 전능함의 보존이 불안을 줄이고 리비디널한 만족을 유지하며 만족의 원천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는 수년 뒤 Kohut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2. 모든 유아는 자신의 기준에서 지나치게 좌절하고 실망하며 거절당한다. 이러한 실망은 유아의 전능한 판타지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애적인 굴욕감을 낳는다.
3. 유아는 전능한 자기에 대한 이러한 공격에 격노하지만, 외부 대상에게 분노를 터트리는 데 무력하여, 분노는 자기를 향해 굴절되고 결국 가학한 초자아에 이바지하게 된다.
4. 피할 수 없는 좌절, 사랑하고 원하는 부모에 대한 공격성의 위험, 자기를 향한 공격의 아픔에 직면했을 때, 그럼에도 유아는 본질적인 전능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려 하며, Bergler의 용어를 빌자면 자신의 실망을 “리비도화”하고 “미화”시킨다. 유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분리된 대상에 대해 영속적이고 완전하며 전능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환상을 위해, 불쾌에서 쾌락을 끄집어내는 법을 배운다. “누구도 내 소망을 좌절시키지 못했어. ; 나는 그러고 싶어서 나 자신을 좌절시켰어.” Bergler는 일부 타고난 성향에 의해서, 불쾌 속의 쾌락이라는 방식이 쉽게 그리고 반드시 발달한다고 믿었다. 그는 이것이 대상 분화가 일어나는 최초 단계에서 발달한다고 주장했는데, 아마도 나였으면 Mahler(1972)가 묘사한 것처럼 분리-개별화 과정의 재접근 단계에서 발생하는, 무력함에 대한 실망스런 깨달음을 얻을 때 통합된다고 덧붙였을 것이다.

Bergler에 의하면 심리적 발달의 초기 사건은 “구강적 3요소”로 특징 지워지는 심리적 피학성의 “임상 장면”으로 귀결된다고 가정했다. Lewin(1950)이 다른 목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기 수년 전에 그가 사용한 단계인 구강적 3요소는, 피학적인 행위에 전형적인 연속되는 3단계 행동으로 구성된다.

1단계. 피학적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또는 사용가능한 외부 상황의 악용을 통해서, 실망, 거절, 굴욕을 무의식적으로 유발한다. 그는 외부세계를, 실망하고 거부하는 오이디푸스기 이전의 엄마와 동일시한다. 무의식적인 거부반응은 만족을 안겨준다.

2단계. 피학적인 사람은 자신의 도발에 대한 인식을 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여기는 거부반응에 대해 겉으로 자기방어를 하고 분노를 느끼며 반응한다. 이런 “가짜 공격성”은, 자신의 좌절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그리고 그 좌절이 주는 무의식적인 쾌락을 부인하기 위해 고안된 방어적인 퇴행 반응이다. 2단계는 금지된 무의식적인 피학적 쾌락에 의한 내면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시도이다.

3단계. 종종 잘못 투사되거나 시기가 좋지 않거나, 무의식적으로 바라던 좌절을 추가로 도발할 수 있는 가짜 공격성이 진정되고 나면, 피학적인 사람은 의식적인 자기 연민, “이런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지”라는 감정에 빠진다. 무의식적으로 피학적인 거절을 즐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임상의 구강적 3요소 또는 Bergler가 명명한 “부당함 수집하기”라는 피학성은, 거의 모든 신경증적 행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의 반복되는 순서를 훌륭하게 묘사해준다. “부당함 수집하기”라는 용어는 Bergler가 만들었는데, 나중(1950) Louis Auchincloss가 소설 모음집 제목으로 사용했다. Bergler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피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병리는 그 중의 하나이다.

### 이론적인 쟁점

이제 나는 피학성에 관한 이전 논의에서 제기된, 일부 이론적인 쟁점을 탐색하려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원초적인 충동에 의거하지 않고 피학성의 방어적이고 적응적인 기능 측면에서 피학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불쾌 속 쾌락 현상에서 발달하는 이상한 안락함과 끈끈함은 방어구조를 잘 사용하는 준비기관을 암시하지만 이론적으로 원초적피학성이라고 불릴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피학성에서 쾌락의 본질은 무엇인가? 쾌락은 어떤 다른 쾌락과 동일하고 고통은 필연적인 죄책감과 동일하다는,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공식은 쾌락원칙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Lowenstein(1957)과 Bergler를 포함하는 분석가 집단은 Lowenstein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피학적인 행위 속에서 외부와 내부의 공격에서 기인하는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리비도화 하는 것을 목격한다”(p. 230)고 주장했다. 그 작동원리는 “만약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그들과 합류하라”인 것처럼 보인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유아가 고통스런 경험을 하든, 엄마가 공감적이지 않든, 익숙한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에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것으로 원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Greenacre(1960)과 Jacobson(1964)은 유아기의 특정 상황에서 고통스런 경험의 의미를 자아동조적으로 바꾸는 방어의 힘을 묘사했다. Greenacre은 지나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아기는 빠르면 첫째 후반기에 성기기의 오르가슴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고, 이러한 초기 사건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향한 공격에서 발생하는 성적 흥분을 만들어내면서 자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최초 개념화와 유사하며, 내가 생각하기에 양적으로 많은 것이 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변증법이 거기에 있을 가능성을 남겨 두어야 한다.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고통이 만족을 안겨주는 건설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통스런 좌절, 실망, 상처가 유아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엄마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어른 입장에서 해석할 때, 불편하고 좌절하고 필요해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24시간을 보내는 아기는 없다. 가장 사랑하고 능숙한 엄마조차도 유아에게 그런 경험을 맛보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 유아가 적절한 정도의 그런 경험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신체, 특히 피부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손상을 피하는 신체 이미지 형성 및 자기 이미지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고유감각 기제일 가능성이 있다. Stolorow(1975)가 요약한 문헌에는 피부에 고통을 가해 정체성 혼란의 완화를 경험하는 많은 사례가 나온다.

경계선 자해자의 전형적인 방식은 비밀리에 자기 자신을 베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통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나중에 그들은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돌봐주는 사람의 통제 너머에 있다는 표출이 사뭇 만족스러운 듯 그 상처를 놀란 사람(돌봐주는 부모나 의사)에게 보여준다. 그런 행위의 두드러진 동기는 자해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자율성을 입증할 필요성이다.

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상적인 발달에 적합한 것보다 훨씬 더 혼란 현상인 유아기에 머리를 지나치게 흔드는 것 또한 필연적이고 유쾌한 자기-인식을 성취해 가는 정상적이고 고통스런 방식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모든 종류의 피부감각, 특히 적당히 고통스런 감각은 자기 경계를 확립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Hermann(1976)은 말했다. : “피학적 쾌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거세 콤플렉스와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그런 관계 뒤에는 매달리고 싶은 충동에 대한 반동형성, 즉 자신을 분리해내려는 충동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초기 발달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엄마와 아이 둘로 이루어진 한몸이 분리되는 과정이 자기애와 고통스런 피학성 이전 단계에 출현한다고 짐작한다. ; 정상적인 분리는 “건강한” 자기애와 함께 간다(p. 30).“

Hermann은 계속해서 고통이 분리에 필연적으로 따라오지만, 유아기의 분리 실패로 인한 피해와 붕괴보다는 덜 나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정신 안에 있는 치유 성향과 손상된 심리 영역의 치유를 촉진하는 고통의 성애화를 언급했다. Hermann은 매달리고 싶은 욕구로부터 해방감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로, 자기 물어뜯기, 자신의 손톱 뿌리 피부 뜯기, 머리카락 뽑기, 상처 딱지 뜯기 등과 같은,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자해들을 관찰했다. : “... 얻으려고 노력한 분리와 관련되어 고통은 발생하는데, 성공적인 분리를 성취하는 것은 쾌락을 가져온다(p. 30).” Hermann은 피학성 성격의 특징을 분리 트라우마의 반동적인 반복 및 성공적인 분리의 실패로 인한 결과로 여겼다.

고통이 자기-인식과 분리-개별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 만족을 주는 성취의 일부라는 설이 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숙달하는 것은 자기-발달 과정의 주요한 성취이다. ; 숙달은 자발적으로 가한 고통에서 만족과 성취를 느끼는 능력을 암시한다. 그러한 성취가 실패로 끝날 경향은 자명한 것이다. 하루 일과 후의 유쾌한 피로, 기진맥진한 운동선수의 황홀경, 멀리 있는 목표의 집요한 추적, 겉보기에 황당한 이상에 기꺼이 매달리

기 - 그런 모든 것은 고통 속의 쾌락을 건설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창의적인 에너지의 원천을 보여준다.

모든 문화에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재능을 가진 혹은 실제 순교를 필요로 하는 업적을 이룬, 이상화된 영웅이 언제나 있다. 그런 성취는 고통 속에서 빛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 어떤 문화도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 심지어 겉에서 보기에 해탈과 같은 유형의 이상에 바쳐진 문화에도 고통스런 의식이 있다. 통과의례와 고행, “성령 세례”는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정체성의 본질을 확인하는 수단인데, 그것이 고통스럽고 격렬할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효과적일 수 있다. 사춘기의 할례의식은 Bar Mitzvah 의식(유대교에서 13세가 된 소년의 성인식)보다 더 분명한 남자다움의 출발과 자기-발달 단계의 표지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피학성 유발에서 공격성 문제는 흥미롭지만 지금은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없다. 발달 과정에서 공격성은 주기적으로 최소 5가지 방향으로 분류된다. : 1) 정당한 자기주장, 2) 투사, 3) 자기에게 되돌리기, 4) 초자아 형상 향하기, 5) 방어적인 입장에서 “가짜 공격성”으로 사용하기. 비율은 다양하지만 자기애적-피학성 성격에서 정당한 자기주장은 부족하다. 나는 여기서 가학성과 피학성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시 등 많은 쟁점을 논하지 않을 것이다. 유아기 아기는 유아기 원숭이든 좌절 경험과 애정 어린 보살핌의 부재가 자기를 향한 공격과 자해를 유발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욕동 융합의 실패나 반전된 분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런 개념은 편리하지만 완전히 적절하지는 않다. Stoller는 여성의 손에 의한 수동성과 굴욕감이라는 초기 경험을 부인하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생긴 적개심이 피학적인 도착뿐만 아니라 모든 도착에서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그의 관점에서 적개심은 모든 성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그는 성도착자가 감수하는 위험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찮지만 통제되지 않는 도착의 진짜 위험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길거리가 아닌 도착자 안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위협이 너무나도 근본적인 것이어서 도착자는 사로잡힐 위험이 보다 덜한 것을 기꺼이 무릅쓴다.” Dizman과 Cheatham(1970)은 Lesch-Nyhan 증후군을 논하면서, 반복적인 강박행동과 스스로 공격하는 경향을 정상적으로 통제하는 기제를 활성화하는 낮은 임계점을 가정하면서, 피학적인 행위의 심리생물학적인 토대를 제시했다.

피학성 성격장애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발달 단계에서 발생하는가? 내 생각을 기술해왔던 바대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피학적인 투쟁은 훨씬 이전에 확립된 피학적인 기능을 다시 가공한 것이라는 점이 오늘날에는 분명하다. 그 이후 성격 발달에서 이러한 방어는 2차적인 자율성의 메커니즘에 의해(Hartmann과 Loewenstein, 1962), 마치 그것이 소원인 것처럼 기능한다.

### 해명하려는 시도

만약 내가 제시해 온 것의 일부만이라도 옳다면, 피학적인 경향은 자기애적인 발달의 필수적이고 아주 흔한 측면이다. 나는 프로이트가 옳았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쾌락원칙은 단독으로는 피학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이중본능 이론 또한 충분

한 시행착오의 능력을 덧붙이지 못했다. 설령 우리가 공격성을 향한 경향이나 욕동을 덧붙이라도, 우리는 여전히 시행착오 능력이 부족하다. 초기 발달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계선과 심리적 장애에 대한 연구에서 파생된 우리의 지식은, 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인, 초기 심리 발달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대상관계와 자기의 발달이라는 쟁점에게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해준다. 리비디널한 쾌락과 파괴적인 만족은 자기-체계가 불안하거나 대상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발생하는, 충격적이고 혼란스런 불안을 방지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되거나 왜곡될 것이다. Kohut(1972)의 자기애적인 리비도, Erikson(1963)의 기본적인 신뢰, Sullivan(1953)의 안전감, Rado(1969)의 기본적인 자부심과 의존욕구, Sandler와 Joffe(1969)의 안전감, Bergler(1949)의 전능환상, Winnicott(1971)의 참자기 중에 어떤 것을 거론하든, 이 모든 것은 최초의 공생동맹에서 벗어나 자기-인식에 대한 유기체의 최초 욕구라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다. 사실상 프로이트는 불행히도 “죽음욕동”이라는 용어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유기체는 안전, 만족, 연속된 자기를 유지하는 즐거움을 위해 리비디널한 쾌락을 포기할 것이다.

관련 문제에 대한 내 관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고통은 자기감 성취와 분리-개별화에서 필수적이고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아마 “나는 고통 받는다, 고로 존재한다”는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다.
2. 세계를 향할 때 필연적인 사건인 분리-개별화의 쓰라림과 좌절은 자기애적인 상처로 인지된다. - 즉 그것은 마법처럼 전능하게 통제하는 느낌을 손상시키고, 인지된 외부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수동적이고 무력하게 될 조짐을 보여준다. 이것이 자기애적인 굴욕의 원형이다.
3. 유아는 자신이 경험한 바의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위험에 직면한 자존감을 방어적으로 회복하려는 시도를 한다. 유아는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수용하기보다는, 고통을 자아동조적으로 만듦으로써 통제를 다시 주장한다. “내가 원해서 좌절한다. 엄마가 매정하게 굴도록 내가 만들었다.” 물론 프로이트(1937)는 일반적인 인간이 수동성을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과, 수동적으로 견딘 경험을 능동적으로 추구한 경험으로 변형해 숙달하려는 경향에 대해 종종 이야기했다. 고통을 숙달하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의 일부이고, 이것은 언제나 고통에서 만족을 이끌어 내는 능력을 암시한다.
4. 유아가 일반적인 고통, 불쾌, 보상의 실패, 자존감이 위축된 상황보다 더한 상황에서 자존감의 일부 퇴화된 흔적을 유지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익숙한 것을 유쾌한 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여전히 쾌락을 구출해 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유아기의 생존은, 자기와 대상에게서 유쾌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것에 달려 있다. 유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적응을 보인다고 학습을 세워볼 수 있다. - 익숙한 고통은 가장 유용한 쾌락일 수 있다.
5. 내가 자기애적-피학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과,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상과 애정 어린 관계에 적합하다.
6. 초기 자기애적인 굴욕의 경험이 외부적 또는 내부적 이유로 인해 지나칠 경우, 이처럼 회복하려는 메커니즘은 실패로 끝난다. 대상은 지나치게 잔인하고 거부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 자기는 만족을 위해 진실한 자기주장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 실망에서 얻어지는 만족이, 진실한 그러나 획득할 수 없고 익숙하지 않은 리비디널한, 확신에 찬,



또는 자아기능적인 만족에 우선한다. 실망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은, 자기애적이고 피학적인 왜곡이 성격을 점령할 정도로 선호하는 자기애적인 주장방식이 된다. Hartmann과 Loewenstein(1962)이 인용했듯이 니체는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멸하는 자로서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p. 59)”고 말했다. 누구나 거부반응은 전능적으로 보증할 수 있다. - 사랑은 훨씬 불확실하다. 만약 누군가 실망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면, 실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자기애적인 피학적 방어를 사용할 정도면, 목표는 사랑하고 돌봐주는 엄마와 가상의 재결합이 아니다. 오히려 잔인하고 해로운 엄마에 대한 가상의 통제가 목표다. 만족의 근원적인 원천은 퇴화되고, 특정한 고통스런 감각의 만족이 종속적으로 파생된다.

7. 추구된 쾌락이 근본적으로 성기기가 아닌, 오이디푸스기 이전 단계에 있으며, 더 만족스런 자기표상, 자아기능 속의 쾌락, 자존감 조절의 금지와 만족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심리적인 피학성은 피학적 도착의 파생물이 아니다. 비록 그 두 가지가 종종 관련되지만. 과시충동, 자기연민의 쾌락, 다른 수많은 만족은 종속적인 역할을 한다.

8. 결국 자기애적-피학성 병리가 우세할 때 초자아 왜곡 또한 일어난다. 지나치게 가혹한 초자아는 모든 자기애적-피학성 병리의 특징이고, 종종 임상 장면을 점령한다.

9. 어떤 특별한 경우에 출현하는 임상 장면은 더 자기애적이거나 더 피학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겉보기에 매력, 자랑, 눈부신 성취, 야망이 충만할 수도 있다. 또는 겉보기에 분명한 우울, 굴욕감 유도하기, 실패의 느낌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의 분석만으로도, 두 유형이 다음과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약해진 감각, 소리 죽인 쾌락, 과대자기와 굴욕감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과민한 자존감, 관계나 직장에서 만족을 이끌어 내거나 지속할 수 없는 무능력, 끊임없는 시기심, 자신을 돌봐야 할 사람으로부터 박탈당하고 학대받았다는 확고한 신념, 도발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

Trilling(1963)은 프로이트의 “쾌락원칙을 넘어서”를 토대로 한, 자신의 훌륭한 에세이 “쾌락의 운명”에서 “인간으로 지정된 타고난 존엄”을 표현하고 “인간이 인식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움직이는 원칙”인 “쾌락에 대한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기술한 Wordsworth 시대부터 있었던 문화적인 태도 내부의 변화를 말했다. Trilling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양적인 변화. 즐기기 위해 불쾌를 선호했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항상 진실이었다. 그들은 행복 안에서는 불러일으킬 수 없는 심리적 에너지를 인식하기 위해 자신에게 어렵고 고통스런 임무를 강요하고, 낯설고 “부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 자신을 맡겼으며, 긴장하는 정서를 추구했다. 그런 심리적인 에너지는 자기파괴 속에서 경험될 때조차 자기-인식과 자기-긍정의 수단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회적 기준이 될 수 있다. - 사회가 일반적으로 쾌락에 부여하는 가치판단을 부정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도, 행위가 아무리 단 한 번의 사적인 것일지라도 사회를 고려하면 불쾌를 선택해야 한다. ;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시대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종종 최고 수준의 사회적 찬양을 받는다. : 그것은 영웅, 성인, 순교자의 선택이며 어떤 문화권에서는 예술가의 선택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양적인 변화는 : 한때 소수의 경험방식이었던 것이 이제는 대다수의 이상화된 경험의 모습이 되었다. 적어도 여기서 심사숙고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쾌락의 이상화된 모습은 마치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어, 포만감과 권태감이 생기는 것처럼 자신을 고갈시켜 왔다. 그곳에 혹은 그 옆에서, 불쾌와 연결되고, 자기-인식과 자기-긍정으로 이어지는 심리적인 에너지 경험의 이상화된 모습을 문헌의 요청에 따라 발달시키고 있다(p. 85).

여기서 Trilling의 모델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라는 독보적인 선동가다. 외관상 수동성이 지배적인 자기애적-피학성 성격의 다른 극단인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를 덧붙일 수 있다. 나는 Trilling이 평소 비상한 그의 통찰력을 통해서, 정신분석 임상에서 우리가 경험해 온 동일한 변화를, 문화의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가 기술한 이런 새로운 유형은, 수년 동안 정신분석이 맞서온, 이른바 자기애적-피학성 성격이라는 동일한 새로운 유형이었다. 이러한 성격유형이 불쾌의 경험을 통해 자기-인식을 성취하려고 분투한다는 것을 Trilling은 분명히 인지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정상적인’ 자기애적-피학성 성격 발달을 이룩한다. 병리적 유형의 다양한 자기애적-피학성 성격은, 거의 긍정적인 성취 없이, 거절과 괴로움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점차적인 양적 변화는, 정상과 심각하게 병리적인 혹은 경계선 사이에서 발생한다. 경계선이나 정신병이 회복할 수 없는 자기-손상을 초래하는 반면, 가벼운 신경증은 자기학대를 가지고 “논다.”

## 임상 사례

이제 나는 임상 사례와 분석에 대한 압축된 설명을 통해 이 주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짤막한 설명으로 굉장히 많은 중요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제시하고 있는 관점과 관련 있는 것 중 일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임상 사례1

26살 학생 Miss A는 만성 불안과 우울, 사회적 고립감, 남자들과 일련의 불행한 관계를 호소하며 치료를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3살 많은 언니 둘이 있었는데, 그들은 냉담하고 무뎠었다. 그들은 성공한 사업가 아빠와 자신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거의 모든 시간들을 바치는 엄마의 자녀들이었다. Miss A는 어릴 적에 가족이 겁먹을 정도로 심하게 짜증내고 성질을 부렸지만, 그 와중에 암전한 아이이자 훌륭한 학생이었다. 비록 관계에서 거리감과 냉혹함을 느꼈지만, 거의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이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할 때마다 엄청 소란을 피웠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혼자 남겨두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14살에 데이트하기 시작했을 때, 이 중산층의 유대인 소녀는 자신의 짝으로 더 낮은 계층의 흑인 소년을 골랐고,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우겼다. 그로 인해 아빠와 다투고, 그때부터 그녀가 16살 되던 해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로 서로 대화하지 않았다. 그녀가 치료받으러 올 때까지 그녀는 남자들과 같은 방식의 패턴을 여러 번 반복했다. : 그녀는 처음부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남자와 격렬한 관계를 맺곤 했다. 남자는 결혼했거나 지적으로 그녀보다 열등하거나 그녀가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 관계 시작부터 그녀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감정을 투사하고, 그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를 신뢰할 수 없고 그가 자신을 떠날 조짐을 보여서 그 사람에게 몹시 화가 나곤 했다. 그녀는 분노에 차 점점 부아가 났고, 결국 자신이 바랐고 염려하던 이별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우울해졌고 버림받았다고 느꼈다.

이런 패턴의 반복은 전이에서 주요한 요소였다. 비록 그녀는 대화 나누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약속에 절대 늦지 않았고, 제때에 비용을 지불했으며, “좋은 환자”가 되려고 애썼다. 그녀는 내가 그녀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매 세션의 끝을, 주말 휴식을, 휴일의 시작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나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우주 공간을 떠다니거나 고립되고 사고당하는 꿈을 꿔다. 외견상으로 나에 대한 그녀의 이상화는 완벽했지만, 꿈과 다른 자료들은 외견상의 이상화에 담겨 있는 분노와 평가절하를 드러냈다. 전이에서 성인의 이상화는 사실 순수한 이상화는 결코 아니며, 어릴 적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경험한 감춰진 분노와 항상 혼합된다. 그녀는 분명히 내가 모든 걸 버리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전과를 우기기 위해 절대 휴가를 가거나 약속을 빼먹지 않았다. 이것은 충분히 분석되었다. 분석 중간 쯤 되던 해 봄, 그녀는 내 휴가 날짜를 정확히 알기 전에 여름휴가를 계획했다. 우리는 그녀의 계획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주도적으로 분리하여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고 자신감을 느꼈다. 몇 주 후 나는 세션 도중에 그녀의 휴가와 내 휴가가 실제로 일치해서 휴가 일정이 잘 됐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격노하면서 내가 그녀로부터 멀리 도망갈 거라며 자기연민을 했고, 자신이 멀리 갈 결정을 미리 했다는 것은 완전히 중요치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 에피소드의 분석에서 몇 가지가 분명해졌다.

1. 그녀의 자존감과 자기이해에서 주요한 부분은, 그녀 자신을 버림받은 무고한 순교자로 표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 그녀는 자신이 버림받는 느낌을 만들어 내거나 대상에 의해 실제로 버림받도록 자극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편안한 익숙함을 느꼈고 친밀한 대상을 통제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사실상 기본적인 수준에서 오이디푸스기 이전 단계였으며, 분명 자기애적인 엄마에 의해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그녀의 생각을 반영했다.
3. 또한 이러한 사고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한 문제의 반복을 나타내며, 전이에서 그녀는 아파와 사이에서 있었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인 관계양상을 다시 체험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된 모든 사고는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또 다시 하게 되지만, 후자는 회복될 수 있는 발생론적인 사고의 모든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다.
4. 사랑과 결합에 대한 최초 유아기 요구의 참을 수 없는 좌절은, 자기애적-피학성 방어로 이어졌다. 그녀가 관심에 대한 탐욕스런 요구로 위장된 관계에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은, 고통스러운 버림받음을, 자기애적인 통제와 피학적인 만족이라는 감춰진 기쁨을 느끼며 반복하는 것이었다. 사랑에 대한 요구는, 거절의 쾌락 측면에서 포기한다. 이것이 자기애적-피학성 병리의 전형적인 일련의 장면이다.

## 임상 사례2

어느 40세 성공한 기업체 간부는, 사소한 재무 조작 비행으로 고발된 일로 인해, 깊은 우울증에 빠져 분석받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조력자 중 한 명의 악의 없는 실수에서 발생한 그 혐의에서 결백했다. 어떤 공무상 오명도 벗었고, 일단 모든 문제가 사소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생 동안 실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자기에게 해로운 도발을 해온 일련의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였는데, 이는 그의 도발에 따른 공격에 직면했을 때 충분히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게 실패하는 것으로 더 잘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런 사건 뒤에는 주기적으로 우울한 감정과 자기연민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감정이 심각했다. 그는 불명예스럽게도 자신의 동료에게 치부를 드러냈다는, 그의 전 이력이 봉

괴되었다는, 위대함을 사칭하여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감정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드러난 증상은 피학적이고 도발적으로 자신을 해치고 연민하는 것을, 자기애적인 실패의 느낌과 하나로 합쳤다. 나는 과거와 치료과정이 연관된 일부 측면만을 보여줬다. 나는 분석과정 동안 일어났고 해석된, 대단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인 재료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 대신에 나는 더 이른 시기의 발달 측면에 집중했다. 윤곽은 이랬고 많은 중요한 문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 자녀 중에서 가장 어렸고 혼자 남자였는데, 나중에서야 가장 사랑받은 아이였다는 걸 알았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매우 쓰디쓰게 회생했다. 그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가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받지 못했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아빠와 엄마에게서 태어난 불사조로 여겼다.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는 씁쓸한 박탈의 감정이 그가 살아오는 내내 피학적인 경향을 형성했다. 그의 엄마는 매우 자기애적인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부와 지위를 향한 자신의 야망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아빠를 비난하는 갈망을, 실현하는 기회를 아들에게서 봤다. 환자는 엄마로부터 사랑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회상했고, 엄마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아들을 이용했고 허약하고 수동적인 아빠에 대항하는 동지로서 사용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아빠는 환자가 4살이 되던 해 우울증이 들이닥칠 때까지는 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와 그의 사업이 둘 다 무너지고는 다시 회복되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이상화에 대한 어떤 시도가 진행 중이었을지라도 그것에 심각한 타격을 줬을 것이다. 부모는 자주 싸웠는데, 엄마는 매일 아빠에게 그의 실패를 떠올리게 했으며, 그 소년은 부모가 별거하여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을 잊지 않고 있었다.

분석이 시작된 직후 그는 만성 우울 수준이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매력과 유쾌한 외양에 가려진 끝없는 부당함 수집하기와 자기연민의 특징이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우울한 예민함은 중단되었다. 그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친구로 여기고 그를 찾아내려고 노력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친구가 없으며 누구에게도 온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부인과 아이를 사랑했지만, 언제까지나 그들 가까이에 있을 필요가 없도록 근무일정을 계획했다. 그는 고립되었다고 느꼈고, 어떤 재앙이 닥칠 거라는 끊임 없는 불안과 함께 살았다. 적당히 거대한 사건이 아닌, 어떤 것에 의해 자신이 끌려 내려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의 우울을 재촉시킨 사건은 그를 부분적으로 괴롭혔다. 그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동료가 굴복하지 않을 때 부당하게 취급받는다고 느끼면서 사업상 동료와 끝없이 싸웠다. 동시에 그는 살인적인 작업 속도를 유지했고 자신의 작업량을 줄일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도움을 결코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기계적으로 아내와 적절한 성생활을 했고, 동침하고 싶은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상상을 끊임없이 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제외한 다른 누구에게든 발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감히 정사를 시도하지 못했다.

치료 초기에 그는 나에 대한 주요 두 가지 관심사를 말했다. 첫째 그가 볼 때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내 목표라는 것이다. “만약 제가 다른 모든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면, 산다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을 바에, 차라리 나쁘거나 죽고 싶어요.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끔찍한 감정을 포기하기 전에, 특별하다는 느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어요.” 둘째 그는 내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내가 상담료를 원하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을 만난다고 확신했다. 그가 그러는 것은 그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울렸지만, 그가 나를 원하는 동안 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상담료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그를 괴롭혔다. 흥미롭게도 그는 내가 오로지 돈 때문에 그를 만난다고 확신하여, 주기적으로 비용을 늦게 지불하면서 그 결과를 걱정하곤 했지만 그걸 스스로 말하지는 않았다. 내가 그의 비용 지체를 직면시켰을 때, 그는 내가 자신에게 화가 나서 자신을 내쫓을 것이라는 공포와 타인이 정직한 사람이라 인식하는 자신에게 비용을 당당하게 독촉하고 있다는 분노가 혼합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자 전이는, 그의 삶처럼, 다양한 자기애적-피학적 주제를 발달시켰다.

초기 전이는 이상화와 거울 형상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내 관점에서 이러한 자기애적인 전이는 어김없이 실망을 예상하는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동등하게 피학적이다. 이상화는 종종 나중에 더 큰 실망을 건설하기 위한 걸치레다. 성인의 자기애적-피학적 성격은, 자신의 거대한 판타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말로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판타지는 무의식적으로 흡족한 실망을 재-상연하기 위한 계기이다. 이처럼 매우 많은 환자에게서 겉으로 보이는 탐욕성은, 지나친 욕구 때문이 아니다. ; 그 대신 그들이 사랑, 시간, 관심,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무엇이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 남성은 세션을 고대하는 것처럼 보였고, 친절하며, 내가 매우 분명하게 하는 발언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분석에서 자신이 얻는 지적인 모든 생각이 내게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동전의 뒷면은 내가 오로지 내 입장에서만 내 지능을 사용하고 자신을 돕는 데는 전혀 관심 없다는 무서운 확신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분석에서 모든 작업이 혼자만의 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꿈은 놀랄 만큼 발전했지만 절대 말하지 않으면서 높은 산을 오르는 선도자였다. 이 꿈을 논하면서 그는 말했다. “너희들이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은 나를 앞으로 미는 것이다. 왜 나를 더 도와주지 않는가? 일은 전부 내가 한 거야. 내가 하는 것 일부를 다른 누군가가 가진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어.” 그런 종류의 판타지는 거대하고 전능한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과 모든 걸 거절하는 엄마의 이미지를 고수하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 판타지의 자기애적인 부분은 피학을 필요로 한다. “저는 제 자신에게 모든 걸 줘요. ; 엄마는 저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지만.” 거대성의 느낌과 박탈에 대해 자신을 연민하는 역설적인 느낌은 동전의 양면이며, 둘 중 어느 것도 상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자기애적인 거대한 자기는 자기애의 최초 싹일 수는 없지만, 자기애적인 판타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좌절의 경험을 통해 항상 강화된다. “나는 거절하는 엄마의 악의를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다.”

치료 후반기에 나에 대한 그의 감정 문제를 끈덕지게 제기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렬히 반응했다. “이건 상담이잖아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당신은 여기 없어요. 없어. 단지 제 뒤에서 욕심 없는 목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끈덕지게 그가 나로부터 어떤 것을 받고 나에 대해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를 그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하자 그는 말했다. “저는 섬뜩해요. 이 논의에 전율을 느꼈어요.” 그는 엄마에 대한 억압된 애정 어린 동맹의 파편이 부활하면서 비롯된, 자기애적인 안정과 자기가 동요하는 것과 관련해 약간의 이인화depersonalization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맹을 인정하는 것은 그 즉시 허약함이라는 무서운 감정을, 악의적인 거인 앞에서 속수무책

인 수동적인 감정을 유발했다. 다른 한편 악의적으로 인지된 엄마에 대한 그런 피학적인, 수동적인, 희생당하는 관계는 자신이 그녀에게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는 자기애적인 희열과 자신이 괴물의 손에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피학적인 희열의 무의식적인 원천이었다. 이 남성의 삶의 많은 부분이, 근원적으로 수동적이고 피학적인 소원을 자기애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엄마와 다정하게 교류했던 머나먼 기억이 회복되자,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우울해졌으며, 내가 그의 한가운데에서 크고 검은 것, 열매 맺지 못했지만 열매 맺었다면 자신을 죽였을 암을 뽑아내는 꿈을 꿔다. 이제 예전 그에게 기분이 좋았던 분석은 극도로 고통스러워졌고, 그는 내가 그에게 제기하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고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에게 자신의 우둔함을 폭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창피를 주고 있다고 우겼다. 내가 그를 무력한 바보로 만드는 것을 즐긴다고 했다. 그는 브룩클린 정신과 의사 방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는 꿈을 꿔다. “저는 최면에 걸려 완전히 무력했어요. 사람들은 유령의 집처럼 포복절도하고 깔깔 웃으면서 저를 조롱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차고의 골동품 가게를 지나 언덕을 뛰어 내려갔어요.” 이맘때 또 다른 꿈에서 그는 완벽한 상태의 크고 반질거리는 고품스런 1928년산 캐딜락을 운전하고 있었다.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운전대가 부서져서 오른쪽 반이 내 손에 떨어졌어요. 그리곤 크고 까맣게 빛나던 보닛이 사라지고, 라디에이터 캡도 사라졌어요.” 그는 1928년생이었다. 이때쯤 그는 자신이 누르고 있던 우유를 더 세게 누르는 방식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지연사정 증세가 생겨났다.

억압됐던 긍정적인 엄마와 관계 회복은 그의 주요한 피학적이고 자기애적인 특징의 방어를 위협했다. 엄마 손에 의해 보기 드문 박탈로 고통 받았다는 금지에 각별히 의존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느낌과, 엄마가 사랑했고 편애했다는 그의 전체 경험은, 그에게 더 우세한 악의적인 힘에게 수동적으로 굴복당하는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그는 치료에서 이러한 변화를, 자기애적이고 피학적으로 만족스런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자신을 친밀함, 상호의존, 자신이 자기-손상과 자기-박탈에서 무의식적으로 추구한 달콤 씹쓸한 쾌락의 범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라는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인식했다. 나와 의 동맹에 대해 점점 더 인식하게 되면서, 나는 전능하고 억누르는 어머니며 그는 희생당한 아이라는 판타지는 악화되었다. “피학성은 인간의 공격성이라는 위협에 직면한 약자(모든 아이)의 무기다.” Lowenstein(1957)은 말했다. 그러한 인식에서 나왔다면, 사실 모든 아이가 인간의 공격성이라는 위협에 직면한다고 강조했겠지만.

이러한 치료 단계에서 그의 부당함 수집하기는 승화되어 새롭게 정제되었다. 잦은 약속 변경 요청, 내가 마법 같은 훌륭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복잡한 꿈, 그가 충분히 치료되지 않았다는 사실,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 강조. - 이 모든 것은, 내 악의적인 억제와 그의 무고한 희생의 증거였다. 부분적으로는, 허약하고 파편화된 자기와 대상표상의 결과인 부당함 수집하기는 또한 죄책감 완화, 분노 돌우기, 피학적이고 자기애적인 방어의 강화이다. 이런 환자는 특정한 고통스런 애착을 가졌다는 두드러진 강력한 인상으로 인해 지목되어 학대 당한다.

많은 혼습 후, 전이에서 변화의 조짐을 알리는 두 사건이 발생했다. 첫 번째는 그가 취소한 약속 날짜를 내가 잘못 적어두었을 때였다. 그는 크게 화를 내는 평소의 반응 대신에,

카우치에 꿏꿏이 앓아, 마치 내가 처음으로 실수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말씀은, 선생님도 실수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몇 주 뒤에 발생했다. 유독 저항하던 세션이 끝난 뒤에 나는 말했다. “저는 우리가 당신의 당신 엄마와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는 또 다시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선생님 말씀은, 선생님이 그 해답을 정말로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그걸 모르며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산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확인시켜줬다. 이제 그는 나라는 실체를 틀릴 수 있는, 그러나 자신의 안녕을 염려하는 인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이 사례는 비록 심각한 자기애적-피학성 문제로 인해 멀고 멀리 우회했지만 전형적인 신경증 환자의 사례와 점차 닮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유형의 환자에게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본질을 더 논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 요약

나는 이 논문에서 발생론적인 가설과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인간의 심리적 발달에서 중대한 자기애성과 피학성의 주제가, 오이디푸스기 이전 발달 단계에서 각자 개개인의 성격을 이룬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더군다나 자기애적인 성향과 피학적인 방어는 발달과정에서 친밀하며 필연적으로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다. ; 사실 너무 얽혀 있어서 나는 자기애적인 성격과 피학적인 성격이 다름 아닌 바로 동일한 것이라고 제안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단 하나의 질병분류학적 실체, 즉 자기애적-피학성 성격이라는 관점을 고려해야만, 이 실체에 관한 방대한 문헌이 더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다.

어느 특정 개인에게서 자기애적이거나 피학적인 특질은, 분석과정에서 발견되고 분명해질 수 있는 내적-외적 우연한 사건의 결과로서, 생활방식에서 더 뚜렷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두 기질적 상태의 상호적인 지원과 구조적인 단일성이 드러날 것이다. 둘 중 어느 것도 상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피학적인 행동을 해석하면 자기애적인 굴욕을 야기하며, 자기애적인 방어를 해석하면 피학적인 희생, 자기연민, 굴욕의 감정을 야기한다.

자기애적-피학성 성격을 분석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과업이다. 나는 우리의 변화하는 준거기준과, 겉으로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병리의 발생론적이고 임상적인 통합에 대해 이제 막 시작된 해명이, 우리의 노력을 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